

## 사찰 '재정 투명화' 바람 분다

사찰운영 신도 참여 확대·신뢰감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신도 20만 명에 이르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12월 6일 사찰 재정 내역을 공개해 사찰 재정운영 투명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찰의 재정 공개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참여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재무제표 공개에 이어 봉은사가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투명화 바람이 범종교계로 확산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화)와 불광사(회주 지홍), 정토사(주지 보광), 대구 관음사(회주 우학),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등이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내년부터 신도단체장 회의에서 재정재정을 공개함으로써 불교계에 재정 투명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6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총무국장 진화 스님이 재정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 봉은사 신도들도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며 '주인의식'을 키웠다. (사진=박재관 기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사찰재정을 공개함으로써 불교계에 재정 투명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6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총무국장 진화 스님이 재정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 봉은사 신도들도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며 '주인의식'을 키웠다. (사진=박재관 기자)

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객비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봉은사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해 신도들이 사찰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도회의 기간조치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 재편도 단행했다. 새 신도로 가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3개월간의 기본교육을 받은 후 신도회에 소속되도록 하고, 지역 및 기능별 모임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신도회 운영에 효율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신도회 조직이 튼튼해야 사찰운영도 원활히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불광사는 1999년부터 재정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와 명동회의(구역별회) 책임자

회의에서는 매달 재정을 공개하고 전체 신도들에게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또한 신도들은 사찰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도 집수, 불전함 관리까지 맡아 실질적인 불광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김제 청운사도 7년 전부터 신도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체계 중심의 운영 대신 '자연토론주의'를 채택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사찰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도회가 주축이 되어 수익사업을 펼치고 이를 사찰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 주지 도원 스님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찰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찰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정토사의 경우 1982년 창건 당시부터 절골 사찰 재정을 공개해 온 사례. 주지 보광 스님은 1987년 직접 '사원유금전출납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원유금전출납부'는 일반 회계 출납부와 달리 경상비와 현물, 특별비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시주금은 물론 불단에 올리는 공양미와 사당 한 봉지까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경상비는 중무소에 서 관리하도록 해 신도회와 사중이 서로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재정'을 이뤄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매 행사 때 마다 결산 공개 시간을 갖고 재정 내역을 신도들에게 공지한다. "신도들은 자

신이 시주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 보광 스님의 지론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을 공개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올 한해 불교계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재정을 공개하게 됐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내년 한 해는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이므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며 "봉은사부터라도 솔선수범해 재정 투명화를 이루면 종단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社告

### 원순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법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여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합허특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2권, 2만5000원)
-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에듀주 에이치비엔씨)



社告

###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우수상(본사 사장상)/특별상



### 현대불교 기사 평가하고 푸짐한 사은품 받으세요

현대불교는 10명으로 구성된 독자운영위원회를 전제독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부다뉴스(buddhanews.com)에서 '독자운영위원회' 코너를 통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내용을 적극 반영해 보다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매월 추첨하여 푸짐한 사은품을 보내 드립니다. ◆참여 방법 - 부다뉴스(buddhanews.com) 좌측 독자운영위원회 코너 - 기사 평가 항목 클릭 ->주소 남기기

### '생명 경시' 방송 풍조에 경종

보리 '생명·생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음식요리를 소개할 때는 엽기적인 살생 장면을 담지 않아야 한다.' '홍미 위주의 작위적 연출로 생명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사)보리(이사장 김재일)가 방송 전반에 퍼져 있는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상생의 방송'을 촉구하는 <생명 생태를 위한 방송 가이드라인>을 최근 펴냈다.

이 책은 보리가 3년간 40여 명의 모니터 요원을 양성해 생명 생태적

시각에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20여 전문가들과 5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쳐 제작했다.

책 속에는 '동물이 영리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등 13가지 생명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KBS, MBC, SBS 등 공중파에서 모니터링한 생명 경시 프로그램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성 산사조정원  
 주문 054-372-3166  
 입금계좌: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한승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가 새롭게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이에 사업장을 옮기어 오는 10월 22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운주사는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업무에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변경주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